

安東金氏大宗會報

發行人: 金泰亨
編輯人: 金崙鳳
印刷人: 金鳳會

發行處

安東金氏大宗會

서울시東大門區藏慶1洞112-49

電話: 244-3717

對替計座: 010983-31-0513119

郵便番號: 130-091

時享日程表

先祖位	享祀日	曜日	墓(壇)奉安所
忠烈公諱方慶之墓	十一月二十二日	月	慶北安東郡祿轉面竹松里
冷平國大夫人竹州朴氏之墓	陰十月九日午前九時	月	慶北安東郡豐山邑檜谷里
文英公諱恂之墓	十一月二十日	土	京畿道安養市冠陽洞後山
文肅公諱永暉之壇	陰十月二十一日	日	忠南天安郡並川面佳田里
上洛伯公諱績之壇	十一月十八日	木	忠北清原郡梧倉面慕亭里
提學公諱益達之壇	陰十月五日	月	忠南燕岐郡全東面美谷里
貞簡公諱永煦之壇	陰十月初二日	月	京畿道抱川郡東面社稷里
領三司事公諱哉之壇	十月十日	日	京畿道廣州郡草月面池月里
按廉使公諱士廉之壇	十一月十四日	日	京畿道抱川郡倉水面可養里
掌令公諱成牧之墓	陰十月一日	日	慶北義城郡義城邑杏峴
密直司使公諱七祐之壇	十一月十七日	水	京畿道楊平郡楊西面木旺里
開城尹公諱七霖之壇	十月三日	日	京畿道儀旺市浦一洞廣谷山
文溫公諱九容之壇	十一月十四日	日	
都評議公諱九鼎之墓	陰十月四日	日	
翼元公諱士衡之墓	十一月十四日	日	
掌令公諱葛之壇	陰十月一日	日	
書雲觀正公諱綏之壇			

周知事項

忠烈公時享은 陰十月九日九時부터 올린 後待機시킨 버스로 檜谷洞에 가서 할머니 時享을 올리고 中食後 그 버스로 安東驛에 午後二時 三十分까지 到着하여 歸家길에 오르도록 從來二일에 걸친 時享을 하루로 短縮하여 奉行하는 일은 昨年부터 每年繼續하는 것이오니 全國宗親들께서는 諒知하시기 바랍니다.

忠烈公先祖齋室 및 管理舍 補修工事 竣工

今年度 大宗會總會에서 承認되었으며, 理事會에서 決議한 바와 같이 安東의 祿轉面 陵洞에 있는 忠烈公先祖任의 齋室이 漏水와 毀損으로 인한 蓋瓦의 補修를 爲始하여 管理人舍宅의 漏水는 勿論 蓋瓦의 補修와 廚房의 石油보일러 改造等 補修工事を 하기 爲하여 理事會의 決議에 따라 提·按·翼 三派에서 各一名씩 推薦받아 工事 監督委員으로 選定

키로 하였으나, 翼元公 派만 推薦한 大宗會理事會 在起氏에게 工事 監督委員을 委囑한바 지난 六月十六日 安東 現地에 내려가 既히 見積書를 提出한 現地 宗親 金泰暉, 金泰仁 兩氏로부터 工事 概要를 說明하고 折衝을 하였으나, 工事費의 過多를 求로 豫算上 不可能함으로 서울業者인 宗親 金相雲, 金尚默 兩氏와 지난 六月二十八日 字로 總工事費 壹千萬원

에 補修工事契約를 締結하고 同七月一日에 着工하여 同七月二十二일에 竣工되었으며, 그 동안 七月十三일에 監督委員 在起氏와 總務部長 泰春氏가 工事 進捗狀況을 視察하였고, 監督委員 在起氏는 現場에서 留宿하면서 工事監督을 徹底히 하여 所期의 目的達成을 한 것으로 思慮되어, 同七月十八日에는 泰亨會長任께서 直接 現場에 가셔서 工事進行

過程을 確認하시고 未洽한 곳을 指摘하여 是 正토록 하셨습니다. 同七月二十二日 竣工과 工事監督委員 在起氏의 工事監督 結果報告와 같이 契約當時의 示方書대로 蹉跌없이 完全하게 施工하였다.

第二回 獎學金授與式 舉行

지난 九月十二日 午後一時 大宗會의 獎學事業을 宗親의 子女中에서 優秀한 成績으로 學業을 履修하는 學生에게 多少의 도움이라 도 되게 하기 爲하여 高等學校 三學生을 選拔하였으며, 大學生은 獎學財團들의 惠澤을 받을 機會가 많으므로 除外된 것입니다.

이러한 趣旨로 各派 會長의 推薦을 받아 會長團會議에서 審査하여 選拔된 十四名을 指定하여 大宗會會議室에서 一九九三年度 第二回 獎學金 授與式을 會順에 따라 國民儀禮와 先祖英靈에 對한 默念이 있는 후 泰亨會長任의 懇曲한 激勵말씀이 있었고, 이어서 會長任께서 獎學金授與證 및 獎學金 貳拾萬圓式과 旅費를 支給하는 授與式을 舉行하였습니다.

獎學金 受惠者는 다음과 같습니다.

派名	姓名	住所
郡事公	金仁福	京畿道平澤郡西炭面沙里七五八
副使公	金圭夏	江原道鐵原郡東松邑花地里
安靖公	金銀植	忠北堤川郡鳳陽面鳳陽里三三六
都評議公	金辰植	慶北義城郡點谷面沙村里一八〇
大護軍公	金奎兒	全南寶城郡得糧面三亭里八八〇
提學公	金泰淙	忠北槐山郡槐山邑陰村里
按廉使公	金恩貞	忠南天安郡並川面佳田里
翼元公	金善英	忠北陰城郡甘谷面旺場里五〇七
書雲觀正公	金福植	忠北槐山郡曾坪邑曾坪里六九二一三
正儀公	金容林	忠南扶餘郡扶餘邑楮石里三八六
	金圭善	忠南扶餘郡扶餘邑楮石里七〇九
	金容植	忠南扶餘郡扶餘邑楮石里四四九
	金容林	忠南扶餘郡扶餘邑楮石里四四九
	金容林	慶北奉化郡奉化面布低里二五六
	金容林	計 十四名

訂正

지난 7월 15日 字第 41號 大宗會報 6面의 獎學基金欄에 在日本 大阪市 居住 文溫公派 永守氏의 獎學基金이 7만 833원인데 7천 83만 3천원으로 잘못 된 것을 訂正함.

(前號에서 계속)
方慶이 忽敦 茶丘에 게 말하기를 「兵法에千里 먼길에 군사를출陣하면 그銳鋒을 당할수 없다고 하였는데, 지금 우리 군사가 적다고 하지만 이미 敵地에 들어와서 모두 싸움마음을 가졌으니 孟明이 배를 불사르고 淮陰에서 背水陣을 하는 것은 이런 때이다. 다시 나가 싸우자.」고 하였다.

그러나 忽敦은 「兵法에 적은 敵兵이 강한 것은 많은 敵兵의捕虜라고 하였는데, 疲弊한 적은 군사를 가지고 날로 증가하는 많은 敵兵을 대적하는 것은 완전한 계획이 아닌 즉 回軍하는 것이 제일이다.」고 하였으며, 마침 蒙古將領 歐亨이 賊의 화살에 맞고 배에 올라가니 그만 全軍을 船中으로 歸還하게 하였다.

그런데 그날밤에 비바람이 크게 일고 艦艇에 부딪치니 군사들이 물에 빠져 죽는 자가 많았다. 不得已 回軍하여 合浦로 돌아와서 鹵獲한 器具를 皇帝와 王에게 獻上하니 王이 樞密副使 張鎰을 特派하여 위로하고 方慶을 上柱國 判御史臺事에 任命하였다.

二年에 蒙古 皇帝의 聖節祝賀使로 元나라(蒙古)에 갔는데 皇帝가 「金宰相」이라고 부르면서 다른 外國使臣들보다 特別 優待하고 또 그를 戰爭의 功勞者로 讚揚하면서 虎頭金牌을 賞賜하니 우리나라 사람을 위해서 黃金兵符를 찬 것이 方慶에게서부터 시작되었다.

歸國할 적에는 王이 朮赤에게 나가서 迎接하였다.
(註) 洪茶丘의 父는 洪福源인데 高宗二十年에 西京將領으로서 宣諭使를 죽이고 叛亂을 일으켰다가 敗하여 元나라로 도망쳐들어갔으며, 元나라에 있으면서 다시 東京管으로 元나라에 잡혀간 高麗의 軍民들을 管理하면서 元나라 조정에서 本國政府를 謀略中傷하였기 때문에 本國과의 사이가 더욱 좋지 못하였다. 그리고 福源이 죽은 다음에는 茶丘가 다시 父職을 踏襲하여 歸屬한 高麗의 軍民을 管領하였다.

그리고 三別抄를討伐할 때에 茶丘가 많은 無賴輩들을 데리고 나와서 우리 官民을 恐喝하였으며, 뒤이어 다시 監督造船官으로 民間의 事情을 생각하지 않고 工役을 甚하게 督促하며 徵集한 軍兵들이 定期日에 到着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나라 將領들을 杖罰하는 등 여러 가지로 行悖가 많았다.

이 모두 方慶에게 私憾이 있었다. 得儒가 進義, 福大 등과 함께 陰謀하고 蒙古 元帥 忻都에게 百方으로 모함하였는데 그 중에는 方慶이 아들 忻, 사위 趙扞, 義子 韓希愈와 孔倫, 金天祿 등 四百餘人과 함께 王과 公主 및 達魯花赤(蒙古人 駐在官員)을 除去하고 江華島에 들어가서 叛亂을 일으키려 하고 있었다. 때문에 日本征伐 後에 軍器는 모두 殫연히 官庫에 收納하여야 할 것인데, 方慶이 親族들과 共謀하고 私家에 간직하였으며, 또 戰艦을 제조하여 珍島等地에 두고 群衆을 集合하여 謀叛하려 한다는 등

이 모두 方慶에게 私憾이 있었다. 得儒가 進義, 福大 등과 함께 陰謀하고 蒙古 元帥 忻都에게 百方으로 모함하였는데 그 중에는 方慶이 아들 忻, 사위 趙扞, 義子 韓希愈와 孔倫, 金天祿 등 四百餘人과 함께 王과 公主 및 達魯花赤(蒙古人 駐在官員)을 除去하고 江華島에 들어가서 叛亂을 일으키려 하고 있었다. 때문에 日本征伐 後에 軍器는 모두 殫연히 官庫에 收納하여야 할 것인데, 方慶이 親族들과 共謀하고 私家에 간직하였으며, 또 戰艦을 제조하여 珍島等地에 두고 群衆을 集合하여 謀叛하려 한다는 등

의 條件을 들어서 말하였다.
여기서 忻都가 達魯花赤, 石抹天衢와 함께 王에게 告하니 王과 公主가 그 誣告인줄을 알지 못하여서 柳澈元傳 등으로 忻都, 天衢와 함께 事實을 審問하게 하였다.

日本 遠征時에 左軍使 金侁이 溺死하였는데 方慶이 韋得儒가 主將을 구원하지 않았다고 해서 罷免하였으며, 郎將 盧進義는 方慶을 따라 珍島를 討伐할 때에 戰鬪에 힘쓰지 않고 民間의 財産을 掠奪하였기 때문에 그 財産을 官庫로 沒收하였다. 그리고 金福大란 자는 역시 당시 從軍하였던 者인데, 세 사람이

는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이었다. 이것을 보고 金天祿이 분해서, 「너희들은 개나 도야지와 같다. 珍島 討伐 당시에 너희들이 法을 범하였기 때문에 中贊(方慶)이 너희들의 財物을 沒收하여 官庫에 넣은 것인데, 너희 두놈이 지금 그 感情을 가지고 있는 말을 꾸며서 大臣을 모함하니 하늘이 무심할 줄 아느냐?」고 하니 福大 등 네명이 다시 「得儒 때문에 署名한 것이요 本意가 아니었습니다.」고 하였다.

이리하여 王은 더욱 그 誣告임을 알고 다만 希念 등 두 명을 武器를 隱匿한 罪로 處決

가 모두 얼어서 먹을 뿌린 것 같았다. 王이 茶丘에게 「前日 忻都가 鞠問을 畢하였는데 지금 다시 더 할 필요 없지 않느냐?」고 하였지만 茶丘는 듣지 않고 기어이 自服하게 하려고 하여 여러 가지로 惡刑을 加하여 몸에 완전한 살이 없고 氣絶하였다. 다시 깨어난 것도 여러 번이었다. 나중에 茶丘가 비밀리에 王의 左右에게, 「時期가 제일 추운 때인데 王도 訊問關係로 피로할 것이다. 그런데 方慶만 죄를 자복한다면 단 한 사람의 流配로써 일은 끝나는 것이오. 國家에는 아무런 利害도 없는 것이다.」

고 권하니 王이 그 말을 듣고 그릴듯이 생 각하고, 또 그 참혹한 現狀을 차마 볼 수가 없어서 은근히 「皇帝는 賢明하니 情實을 알아서 極刑을 加하지는 않을 것인데, 이렇게까지 고생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하였다.

그러나 方慶은 「大王께서 어찌 이리시나이까? 臣이 士兵出身으로 職位가 재상에 이르렀으니 肝腦塗地하여도 마흔껏 報國을 하지 못할 것이운데 어찌一身을 아껴서 없는 죄를 있다고 하여 나라에 해가 되게 하겠습니까?」하고 다시 茶丘를 돌아보며, 「죽이려거든 빨리 죽이라. 나

는 죽어도 不義에 屈服하지는 않겠다.」고 말하였다.
나중에는 武器 藏匿이라는 罪名으로 方慶을 大靑島에, 忻을 白翎島에 流配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놓아 주었다.
그 다음 方慶의 父子는 그 無罪한 것이 内外에 밝혀지고 蒙古 皇帝도 다시 方慶을 中善大夫 管領, 高麗 國都元帥로 任命하기까지 하였다.

高麗史列傳

〈마지막회〉
鄭麟趾 原撰
金龍國 抄譯

第二次東征

忠烈王 七年 三月에 軍사를 동원하여 다시 日本을 征伐하게 되었다. 方慶이 먼저 義安軍營에 到着해서 軍대와 무기를 査閲하고, 王이 合浦에 이르며 全軍의 大査閲을 實施하였다. 그리고 方慶이 忻都, 茶丘, 朴球, 金周鼎 등과 함께 出發하여 世界村 大明浦에 이르러 通譯員 金貯로 檄文을 가지고 가서 諭示하게 하고 뒤이어 周鼎(註)이 먼저 倭軍과 交戰하고 여러 將兵이 모두 下陸하여 戰鬪가 벌어졌는데, 이 싸움에 康彦, 康師子 등이 戰死하였다.

六月에 方慶이 周鼎球, 朴之亮, 荊萬戶 등과 함께 日本兵과 會戰하여 三百餘級을 베었는데 日本兵이 突擊하여 나오니 官軍이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茶丘는 怯에 질려 말을 버리고 달아났는데 王萬戶가 다시 側面攻擊을 하여 五十餘級을 베니 日本兵이 退却하였다. 茶丘는 겨우 죽음을

免하고 이튿날 싸움에도 不利하였다. 그리고 軍中에 다시 疫疾이 들어서 죽는 자가 三千餘名이나 되었다. 忻都, 茶丘 등이 여러 차례의 싸움에 勝利하지 못하고, 또 范文虎(註)가 約束한 期日이 지나도 오지 않는다고 해서, 皇帝의 分附가 江南軍으로 東路軍과 함께 이달 五日까지 一岐島에서 會合하기로 하였는데 우리 군사만 먼저 와서 여러 번 싸워 武器는 破損되고 軍糧은 떨어지게 되었으니 어찌하면 좋으냐?」고 하며 回軍할 意思를 표시하였는데, 方慶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 다음은 十餘日이 지나서 忻都 등이 또 回軍할 의논을 하므로 그제는 方慶이, 「皇命을 받들어서 석달 양식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한달 양식이 그대로 남아 있다. 南軍이 오는 것을 기다려서 힘을 합하여 攻擊하면 賊을 滅할 수도 있을 것이다.」고 말하니 여러 장수들이 감히 다시 여러 말을 하지 못하였다. 뒤이어 范文虎가 南軍 十餘萬을 領率하고來到하니 戰船이 九千隻이나 되었다. 그런데 八月에 큰 風浪을 만나 南宋軍이 모두 물에 빠져 죽으니 屍體가湖水를 따라 밀려들어와서 계곡이 막혀 사람들이 다리고 건너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風浪의 큰 損害를 입고서 遠征軍은 그만 還軍하고 말았다. 九年에 上書해서 退職을 要請하여 推忠靖難

定遠功臣, 三重大匡 議中贊, 判典理司事, 世子師로 致仕하였는데, 僉議令을 加贈하고 上落君開國公, 食邑一千戶를 封하였다.
二十六年에 病으로 逝去하니 享年이 八十九歲이었다. 方慶이 忠直 信厚하고 器局과 度量이 넓고 커서, 작은 일에 拘得하지 않으며 性格이 謹嚴하고 말이 적으며, 子侄輩를 대하는 데도 예절을 벗어 나지 않았다.
故事를 많이 알아서 일을 처결하는데 錯誤가 없으며, 勤儉修身하고 낮에는 늙는 일이 없었다. 늙어서도 머리카락이 희지 않고, 주위와 더위를 타지 않았다.
官職에 있는 중에 도 항상 친구들을 동정하고, 喪故가 있으면 몸소 가서 조문하며 一生中에 다른 사람들을 말하지 않고 벼슬을 그만두고, 나은 다음에도 國事를 염려하기를 집안일같이 하였으며, 王도 또한 國家의 重大事가 있을 때마다 반드시 그에게 물어서 처리하였다.
王命으로 故鄉인 安東에 葬事지내기로 하였다. 당시 政權을 잡은 사람들이 싫어하여 國禮로 葬事를 누리는 것을 中止하였는데 다 음 王이 그 잘못을後悔하였다.
忠宣王(第二十六代)이 宣忠協謀, 定難靖國, 功臣壁上三韓, 三重大匡을 贈職하고 諡號를 「忠烈」이라고 하였으며, 下命하여 神道碑를 세우게 하였다.
(二面に 계속)